

“못난 엄마야... 아가야, 미안해” 미혼모 엄마와 여러 병 앓는 시열이 이야기

시열이는 선천성 얼굴기형인 구순구개열에 심장기형, 횡경막 탈장이란 병을 한꺼번에 안고 태어났다. 입술과 잇몸 입천장이 갈라지는 구순구개열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젖병을 힘차게 빨지 못한다. 심장기형 탓에 호흡이 가쁘고 잘 먹지도 못한다. 횡경막에 난 구멍으로 장기가 밀려 올라가 숨쉬기조차 힘들어한다. 시열이의 체구는 100일된 아기보다 작다.

3월 5일 오전 6시10분 전남 목포 K산부인과 병원. 아기는 힘없이 한 번 울었다. 간호사는 아기 얼굴을 엄마에게 몇 초간 보여줬다. “남자아이입니다.”

순산의 기쁨도 잠시,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숨이 막혔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입덧도 없고, 태동도 못느끼고, 배도 불러오지 않았으며, 갑상선기능항진증 때문에 원래 월경을 안하는 때가 더 많았기에 임신 중인 사실을 전혀 몰랐던 그녀. 그동안 먹었던 약이며 술이며, 내뱉었던 말이며, 미안한 일 투성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아이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가 많이 미안해 우리 아가. 지금 엄마가 널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네. 열심히 기도할게. 못난 엄마가.’

아버지, 그리고 남자

아버지는 외동딸인 그녀를 걸핏하면 때렸다. 어머니는 그녀를 외할머니 집에 맡겨 두고 어디론가 떠났다. 외할머니 집에서 외삼촌이 때렸고, 아버지는 학교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맞서 싸우겠다며 초등학교 때 유도부에 가입했고, 중학교 때는 유도선수로 전국체전에 나가 입상할 정도로 열심히 운동했다. 하지만 계속 맞고 살았다. 그래서 가출했다.

어린 시절부터 유도부에서 같이 지낸 이성친구에게 고민을 하나 둘 털어놓기 시작한 때가 2009년.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친구는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했다. 둘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이성친구에서 남자친구로, 동거하는 사이로 발전했다. 그러던 그가 언제부턴가 그녀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했다. 그 뒤로 그는 곧잘 화를 못 이기고 그녀를 밀거나 때렸다. 2010년 말, 그녀는 태중에 아이가 자라는 줄도 모르고 그와 이별했다.

시열이 이야기

시열이는 소아과 진료도 동시에 받고 있다. 상태는 심각하다.

삼성의료원 최연호(소아과) 교수에 따르면 시열이는 오른쪽 횡경막에 구멍이 뚫려 간이 폐까지 올라와 있고, 숨을 잘 못 쉴 뿐더러 폐렴에 쉽게 걸릴 수 있다.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해야 하지만 그럴 수 없다. 횡경막 탈장 수술을 감당하기엔 너무도 작고 약하기 때문이다.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몸무게는 10kg. 시열이의 몸무게는 4.2kg이다. 생후 6개월 된 남자 아기 평균 몸무게(8.5kg)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래도 견뎌내야 한다.

생명이 알게한 삶의 기쁨

아이를 낳고 처음으로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꿈도 생겼다.

“주얼리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예전에 배웠거든요. 주얼리 디자이너가 되면 집에서도 일할 수 있고, 그러면 시열이랑 같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일보 2011년 9월 1일자 기사에서 수정 발췌



26살 미혼모 엄마와 시열이의 삶을 응원해주세요.

눈이 맑은 남자아이, 시열이는 생후 6개월입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질병들 때문에 매일이 병원신세입니다. 당장 살 집도, 병원비도 없어 막막하기만 하지만, 26살의 엄마와 6개월의 시열이는 곳곳이 살아나갈 겁니다. 이들에게 작은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이들과 같은 미혼모 가정의 편견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이들의 작은 삶을 응원해주세요.

2011년 9월 20일 화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중앙도서관 앞 광장에서
시열이네 가족을 위한 모금운동과 응원 메시지 적기,
그리고 미혼모 인식개선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후원계좌: 농협 3520-2519-3745-3, 예금주 장은희
(이 계좌로 보내시면 직접 시열이 어머니께 송금됩니다.)

시열이에게 희망을

+ 미혼모 인식 개선 캠페인



연세대학교 제23대 총학생회 | 대학생자원봉사단 VOLUNTEER 원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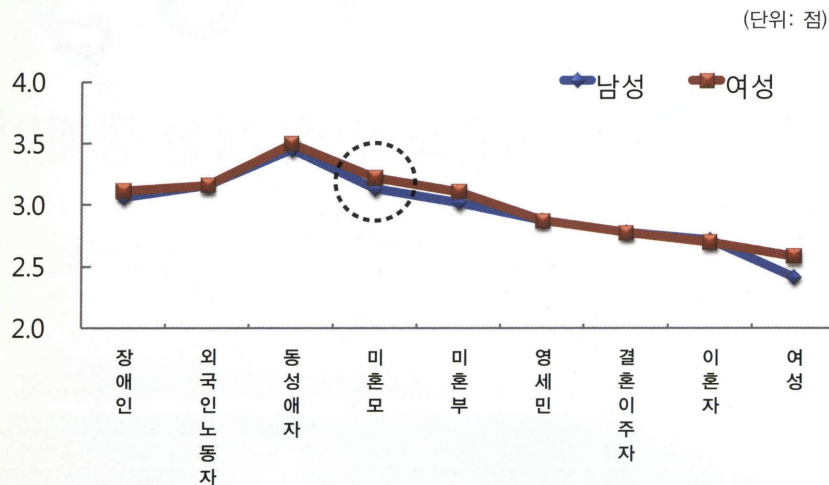
국내 미혼모 현황과 실태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는 2002년 1,673명(8개소), 2005년 2,123명(14개소), 2008년 2358명(48개소) 등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미혼모 가구의 수는 1995년 90,986가구, 2000년 117,764가구, 2005년 133,234가구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 내에서 여전히 미혼모들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인의 편견으로 직장생활을 한 미혼모 가운데 93%(284명)는 직업단절을 경험하며, 미혼모라는 이유로 기초수급자 자격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한국 사회 내 미혼모에 대한 차별의식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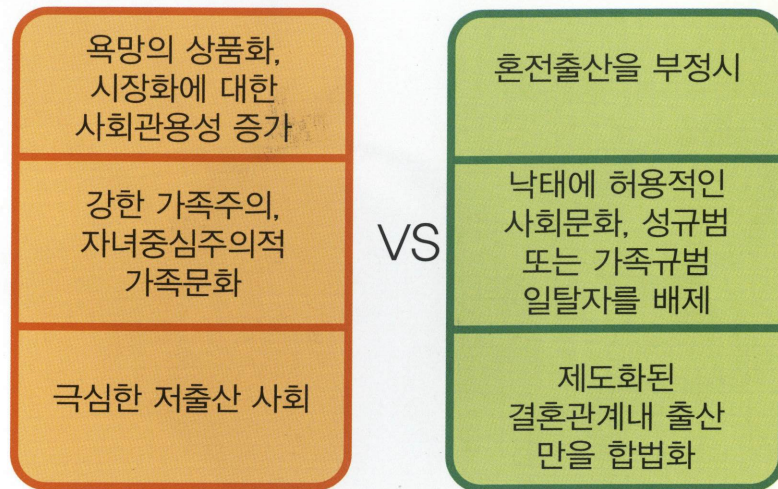
김혜영 외, 2008

점수가 높을수록 차별이 많이 일어난다고 인식하며, 1점은 차별이 전혀없다, 4점은 매우 많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보듯, 미혼모의 경우 동성애자 다음으로 사회의 수용도가 낮으며 사회적 거리감이 큼니다.

위드맘 홈페이지 '미혼모 인식개선 및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교육자료' 에서 발췌

차별 및 편견의 원인

미혼모 가정에 대한 차별 인식이 유달리 극심한 원인은, 아래와 같은 한국 사회의 모순 때문입니다.



미혼모 정책 과제

- 1. 아동 생애주기에 맞춘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 분유 및 기저귀, 영유아 예방접종, 학습비 및 장학금 지원
- 2. 미혼모 자립을 위한 취업 및 창업 지원**
- 체계적인 직업교육, 지속적으로 근무가능한 일자리 지원
- 3. 미혼모 가족 생활을 위한 시설 필요**
- 자립 전까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망 절실
- 4. 다양한 주거지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
- 폭넓은 임대주택 제공 및 주택 이용을 위한 보증금 대출제도 형성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 미혼모 가족도 다양한 가족 형태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인정합니다.

조손 가족,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는 현대사회에서 미혼모 가족은 '특별한 문제적' 가족형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식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 혼전 출산에 관한 인식과, 미혼모에 대한 인식은 다른 문제입니다.

전자는 개인의 도덕적 윤리와 관련된 선택의 문제이지만, 후자는 생명이라는 절대 가치를 존중하기로 결심한 한 사회구성원의 선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혼전 출산을 부정시한다고 하여,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마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예견되는 슬한 고통에도 한 생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그들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며, 따라서 용기있는 그들이 사회에서 평등하고 정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식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 미혼모에 대한 인식개선은 곧 낙태율 감소로 이어지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낙태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달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기저에 깔린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닌 미혼모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한 생명이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으로 사라지게 하는 데 일조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미혼모에 대한 사회 인식이 개선되고, 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한다면, 이는 곧 낙태율 감소로 이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미혼모가 아닌 '두리모' ?

2011년 6월,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미혼모 새이름 찾기 공모전' 을 진행한 결과 '두리모' 라는 이름이 선정되었습니다. 아직 우리사회에서 미혼모가 아빠와 엄마 역할을 다 해야하고, 세상의 편견에 맞서는 강하고 둥근 마음을 갖고자하는 의미로 지어진 것이라고 하네요. **이제부터 미혼모가 아닌 두리모를 사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